

하루를 시작하며



좌 정 목
시인·문학평론가

꼭 1년이 됐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으로 온 국민이 공포를 느끼면서도 밤을 지새우고서야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 대외적으로 군부 쿠데타나 일부 정치권의 반란을 일으키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의 수준으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말았던 게 바로 어제 일 같다. 지금도 그 계엄으로 인한 탄핵 정국이 정리되지 못하고 주동자와 동조자들의 뻔뻔한 변명을 법정이나 매체를 통해 보고 듣게 되는 일은 피로한 일이다. 법의 이름으로 단호함을 간절하게 바라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애

겨울나무 가지치기

써 법치국가를 표방한다. 윤석열 탄핵 이후 지금까지 단 하루도 국회와 법정에서 있었던 일들이며 말들이 뉴스가 아닌 경우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을 것 같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당과 야당의 극한 대립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기대하는 일은 우스워 보인다. 법과 원칙의 보루라고 믿으며 의지해야만 하는 법원의 행태 등도 미덥지 못하다. 기성세대로서 청소년들이나 젊은 청년 세대들에게 교과서적인 정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 일은 몹시 부끄러울 것 같다. 법이 무엇이고 민주주의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일이 또 얼마나 공소(空疏)하나. 이제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될 쌍둥이 손녀들이 휴일에 시골로 내려와서 저들끼리 놀다가 몹시도 궁금한 것처럼 내게 다가와서 물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등이나고, 1등인지 않냐고 물었다. 녀석들의 묻는 의도를 짐작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 스스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순진한 아이들에게 거짓을 말할 수는 없었다.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고 할아버지는 힘이 없어 조금의 도움도 되지 못했다며 애써 웃고 말았다. 다만 쌍둥이들이 자라서 꼭 1등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12·3'이 고작 1주년에 불과하다. 모든 반민주와 불법을 밝혀 심판을 받게 하고 세계정세에 뒤처지지 않고 많은 분야에서 정상을 회복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80년의 피눈물이 '광주민중화운동'이란 이름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가. 제주의 1948년 '4·3'은 77년이 흐른 지금도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

치권에서 '12·3'을 기념일로 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하지만 우선은 '12·3'에 대한 명명, 즉 '정명(定名)'이 우선이다. 정치권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합의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시골집 앞뜰에는 감귤나무와 유실수들이 몇 있고 주위로 소나무와 향나무들이 있다. 오랫동안 집을 비워둔 탓으로 나무들이 스스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잘 자라고는 있지만 보기에 어지럽게 느껴지곤 한다. 자연스럽기로 따진다면 저들이 사는 모습 그대로 여야 했지만 사람이 함께라면 반드시 사람의 눈에 안겨야만 한다. 탄핵 이후의 정국을 쫓그리면서 도리질로 바라보며 지낸 탓인지 썩썩썩 잘라내고 바람길을 열어가면 쾌감이 느껴질 것 같다. 바로 1년 전 그 밤으로부터 옥죄던 것이 풀릴 것처럼.

사설

제주공항 1분 주정차 단속 불만·불편 없게

제주국제공항 도착층 일부 구간에서 단속카메라를 통해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1분 단속' 제도가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첫날 적발 사례도 있었다.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시행 초반 예상대로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평일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제주공항 1분 단속은 공항 내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단속 구간은 1층 1번~5번 게이트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단속 구간은 1층 1번~5번 게이트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소방차 전용구역 등이다. 적발 시 일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앞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행정예고에 이어 11월 10~30일 계도 기간을

거쳤다. 절차상 하자는 없다. 그러나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제도 시행을 모르거나, 단속 안내가 미흡하다는 등의 의견이 속출했다. 교통혼잡 해소와 안전사고 방지를 단속의 명분은 확실하다. 공항 이용자라면 공감하고 있다. 오죽하면 5분 단속 유예에서 1분으로 단속시켰을까는 사정도 이해한다. 너무나 마구잡이식으로 5분을 '활용'하면서 사달이 난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홍보가 부족했고, 시행에 맞춰 안내도 미흡했다. 도로 폭이 좁고, 길도 짧아 인파와 차량이 뒤섞이는 주말 휴일인 경우 승하차 불편과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도민·관광객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했다. 모두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와 계도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해 징수해야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에게 대한 가택수색이 이뤄졌다. 가택수색은 도 본청과 행정시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조가 투입됐다. 지난 11월 20일부터 4일간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명품가방, 귀금속, 건축용 공구, 감귤 선과기 등 47점을 압류했다. 또 체납자 소유 자동차 2대에는 족쇄를 채워 운행을 정지시켰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자 1명은 자동차 강제 점유 중 체납액 1100만원을 현장에서 납부했다. 체납자 2명은 체납액 3100만원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제주도는 압류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이번 가택수색

이후 관련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들이다. 제주에는 고액 체납자가 164명에 이른다. 이미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 가택수색은 고액 체납자들에게 고가의 물품을 압류해서라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시에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도 심어줬다. 체납은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납세형평을 훼손하는 행위다. 납부할 능력이 되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적을 통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열린마당

다수사상자 사고, 모두 함께 대비해야



김 경 덕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최근 제주 우도에서 발생한 다수사상자 사고는 응급의료 대응이 지닌 특수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다수사상자 사고는 단시간 내 여러 환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으로, 초기 현장 대응의 속도와 체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소방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환자를 상태에 따라 분류하고,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료기관과 지자체도 협력해 병상 확보, 교통정리, 추가 지

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대응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순간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에 평소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소방은 현장에서 환자를 신속히 분류하고 이송을 조정하며, 병원과 지자체는 병상 확보와 현장 지원을 실시한다. 이러한 유기적 협력이 이뤄질 때 더 많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둘째, 도민이 참여하는 반복적인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 실제 사고는 매뉴얼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소방·의료기관·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 다수사상자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모두가 함께 대비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뉴스-in

“연말연시 공직기강 해이 막자”

서귀포시 전 부서 집중 감찰
○...서귀포시는 연말연시 회식·모임이 늘며 공직기강 해이 가능성이 커지자 시민소통지원실 소 통감찰팀에서 점검반을 편성, 12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감찰활동을 강력 추진. “연말·연시 공직자 행동수칙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예방교육에서는 회식·모임·카톡·문자 사용 시 성인지 감수성 유지와 회식·골프·게임 등 사행성 내기 금지, SNS·단톡방에서 공무원 품위 유지 등 비위 예방을 강조할 계획. 시 관계자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하고, 비위가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와 인사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언급.

인문·자연 치유 여행 호응
○...제주의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 돌보는 '제주 오티움(Otium)' 투어 스타라이트(별빛) 행사가 최근 호응 속 마무리. '오티움'은 능동적 휴식을 의미하는 라틴어로,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천문학을 통한 사유의 여행을 주제로 별 관측, 치유의 숲 체험, 전시 관람, 스윙댄스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번 오티움투어를 구성했고, 참가자들은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 “스스로를 조금 내려놓은 여행을 즐겼다” 등의 소감을 전하며 호평.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의 자연과 지역 자원을 인문학적·재해석해 웰니스 관광의 깊이를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언급.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백춘도(1980. 11. 07. 생)
• 최후주소 : 제주시 월두2길 34, 104동 402호(아리랑, 노블리2동)
상기자는 2025년 9월 7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5년 11월 26일 제주지방법원 2025년단504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정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강원 인제군 북면 월릉로315번길 12, (원통리) 송달주소 : 제주시 남평북3길 7, 3층(이도1동 성수빌딩) 송달영수인 : 정경민
2025년 12월 3일
청구인(상속한정승인자) 함윤숙 백서연 백서연 백서진 청구인 백서희 백서연 백서진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함윤숙

깨끗한 환경 건강한 생활
제주, 입주청소
하수구청, 번기교체 제주작업/별초대행
010-4025-6424
- 입주, 이사, 거주, 부분청소 -
아파트, 빌라, 연립, 펜션, 개인주택, 식당, 상가, 학원, 사무실, 공연장 등등
줄눈시공/방충망교체/생활폐기물처리 싱크대수전교체/공방이제거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산뜻하게 입주 첫 날의 그 깨끗함, 그대로를 재현합니다.
제주크린 등록번호:616-16-81361 세금계산서 발행, 카드결제 가능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가임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753-0404 FAX.751-0045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명철(1972. 05. 03. 생)
• 최후주소 : 제주시 예림을 하로로 246, 101동 201호(예림을 파스텔빌리지)
상기자는 2025년 8월 2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5년 11월 25일 제주지방법원 2025년단567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정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시 우형서로 31, 1002호(외도일동, 남건흥스9사) 송달주소 : 제주시 남평북5길 12, 4층(이도1동 1082-3) 송달영수인 : 임정현
2025년 12월 3일
청구인(상속한정승인자) 이 동 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월2리 용암동골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A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할말이내 가능합니다.”
◆ 자택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